육아공감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 실현

2025-2026

스물 두 째
이야기



| 육아일기 |

처음인 우리, 잘 해보자!
한결이와 함께 배우는 삶의 온도

| 육아포커스 |

AI 시대, 장난감 블록이 코딩 교육보다 중요한 이유
AI 기술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부모교육 |

영유아 시기의 **미디어 노출과 언어 발달**
AI 시대,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 정책이야기 |

실종유괴예방에 대해 생각해보기
0~2세에게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다고요?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 실현**

Be HAPPY



육아공감이란?

출생에서 취학 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전문적인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식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종합적인 보육 및 육아 지원 기관으로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체계적으로 돕고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전문적인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2025년 통권 22호 | 육아공감

발행일 | 2025.11. **발행처** |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발행인** | 정경진 **디자인·인쇄** | 디자인나무(032-327-6109)

CONTENTS





04 **육아일기 I**
처음인 우리, 잘 해보자!

06 **육아일기 II**
한결이와 함께 배우는 삶의 온도

08 **육아포커스 I**
AI 시대, 장난감 블록이 코딩 교육보다 중요한 이유

12 **육아포커스 II**
AI 기술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부모가 알아야 할 디지털 안전 상식

15 **부모교육 I**
영유아 시기의 미디어 노출과 언어 발달

18 **부모교육 II**
AI 시대,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22 **정책 이야기 I**
실종유괴예방에 대해 생각해보기

24 **정책 이야기 II**
0~2세에게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다고요?

26 **건강이야기**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키는 응급처치

30 **[부록] 웹툰**
그때가 좋을 때다

32 **센터소식**

우리 가족은
육아공감으로 소통해요!







처음인 우리, 잘 해보자!

정슬기 | 4개월 아이 양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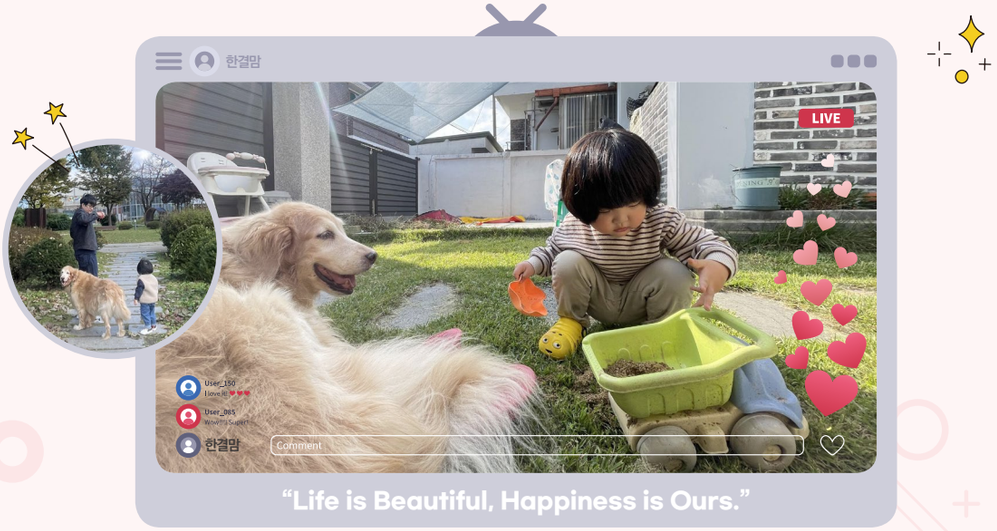
2025년 초여름, 쭈글쭈글하고 새빨갛고 물에 잔뜩 불은 아기가 세상에 나왔다.
'아, 그래서 핏덩이구나.'
그 순간 벅찬 감정보다는 솔직히 놀라움이 앞섰다.
'어? 너무 못생긴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땐 정말 그랬다. (지금은 모성애 필터가 장착되어 그 얼굴마저 귀엽기 그지없다.)
모자동실 첫날, 아기를 내 품에 안았는데 내가 안으면 빽빽 울었다.
기저귀를 갈때면 꼭 벗겼을 때 쉬를 발사 했다.
임신 기간 내내 "우린 한 몸이니까 잘 통할 거야"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다.
"기억 안 나니? 엄마 목소리 모르겠어?"
내 미숙함을 아기 탓으로 돌리며 괜히 투정도 부렸다.

처음에는 '엄마'라는 말도 잘 나오지 않았다.
그 단어는 늘 나를 키워준 내 엄마의 이름이었으니까.
남편이 "엄마가 맘마 준대~"라고 말할 때마다 흠칫 놀라며 어색하게 따라 했다.
"그래... 엄마가 맘마 줄게."
그렇게 나는 어설프게 엄마가 되어,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의 첫날은 혼란 그 자체였다.
"와, 그동안 나는 참 등 따숩고 배 따숩게 살았구나."
세상의 모든 육아 선배들이 한순간에 존경스러워졌다.
아기는 낮이고 밤이고 자주 먹었고, 트림을 시켜줘야 했고, 스스로 잠들지 못해 슬퍼했다.
낮에는 혼자 아기를 보며 아기를 안은 채 변기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이게 뭐지…' 싶어 현타가 오기도 했다.
하지만 '오' 모양 입으로 두리번거리는 표정이나 배냇짓을 보면, 또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렇게 피곤함과 사랑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엎치락뒤치락했다.

이제는 '인간 침대' 시절을 지나, 혼자 침대에서 잠드는 아기를 보면 그저 고맙다.
"고마워, 사랑해."
하지만 마음 한 켠에서 슬쩍 욕심이 고개를 든다.
'눕혀만 놔도 혼자 잠든다던데... 통잠은 언제 자려나...'
그럴 때마다 여름밤 하얗게 새운 새벽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기다리던 100일이 됐지만, 마침 '원더윅스'와 겹쳐 긴 추석 연휴 내내 아기는 울었다.
그래서 아직도 모르겠다.
이게 100일의 기적인지, 100일의 기절인지.
그래도 확실한 건 있다.
아기가 내 눈을 보며 웃고, 옹알이를 할 때마다
그 모든 수고가 단숨에 사라진다는 것.
이제 나는 나의 행복보다 아기의 행복을 더 자주 빈다.
'오늘은 잘 웃고, 편히 자길.'
그게 요즘 내 하루의 목표이자, 가장 큰 보람이다.
조금은 덜 서툴지만 여전히 배우는 중인 초보 엄마로서,
나는 오늘도 아기와 함께 자라나고 있다.

한결이와 함께 배우는 삶의 온도

임이랑 | 26개월 아이 양육자



마흔 셋의 늦깎이 엄마인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커리어를 포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일하는 것이 제 정체성이었고, 성취가 곧 존재의 이유라고 믿었던 사람이지요. 자연스레 결혼은 늦어졌고, 출산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두려움이자 낯선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삶의 과정이지만, 제게는 커다란 결심이 필요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반려견 두 마리와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며 '아이 없이도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산책을 나가고, 퇴근 후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하루를 위로하던 평범한 나날들. 하지만 친정엄마의 병환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 어딘가가 요동쳤습니다. "이제는 더 늦추면 안 되겠다." 엄마의 삶과 저의 삶이 교차하는 순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이 갖기 프로젝트'. 그리고 2년의 기다림 끝에, 제 나이 마흔둘에 금쪽같은 아이, 한결이를 품게 되었지요. 그 순간의 벅참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도심 속에서 일과 경쟁에 파묻혀 살던 저희 부부는,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며 조금 더 '사람 냄새 나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빌딩 숲을 벗어나 작은 소도시로 향했어요. 마당이 있는 작은 집,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골목길, 이웃 어르신들의 인사 한마디가 따뜻하게 다가오는 곳. 도시의 화려함 대신, 흙내음과 바람소리를 들으며 살고 싶었던 거 같아요. 어르신들만 살던 이 마을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그 시간 속에서 '함께 사는 기쁨'을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육아의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워킹맘으로서의 일, 반려동물 네 마리의 돌봄, 꼬물이 한결이의 양육, 가족의 도움 없이 우리 부부가 감당해야 하는 하루하루는 생각보다 버거웠습니다. 새벽녘 한결이가 잠든 틈에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동이 트면 다시 출근을 준비하는 날들의 연속이지요. 몸은 늘 피곤했고, 왜인지 마음은 때때로 외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웃음소리 한 번이면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한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제 볼을 쓰다듬을 때, 세상 모든 고단함이 녹아내렸지요. '힘들다'보다 '감사하다'가 더 먼저 떠오르는 날들입니다.

한결이는 이 동네의 '축복'입니다.
아이 울음소리 들리기 힘들던 조용한 마을에 그가 태어나자, 동네 어르신들은 마치 자기 손주처럼 기뻐해 주셨어요. 출산 후 집으로 돌아오던 날, 옆집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아이 울음소리를 듣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집 어머니는 매주 성당에서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골목 끝 도예가 이웃은 손수 빚은 이유식기를 정성스레 포장해 선물해 주셨지요. 시장에 나가면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어디 있대?" 하시며 뻥튀기를 작은 손에 꼭 쥐여 주시지요. 그렇게 한결이는 마을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아이의 존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따뜻한 마음이 다시 우리 가족을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낳기 전 서로 약속한 게 있었어요.
"예민하게 키우지 말자.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말자. 우리가 자랐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로 키우자." 웃프게도 나이 많은 엄마 아빠는 꼼꼼하고 민첩하게 육아를 할 체력이 안 되더라구요. 육아는 체력 싸움이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덜 간섭하고, 더 믿어주는' 부모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육아는 없다는 걸 알만한 지혜를 갖춘 나이니까요. 나이 많은 부모의 대단한 무기이기도 하죠.

그래서일까요? 한결이는 참 단단하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울지 않고 스스로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이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걸 알고 있지요. 위험한 물건 앞에서는 "아야 하는 거야"라며 조심성을 배우고, 멍멍이 형아들과 간식을 나누며 기다림을 익혀갑니다. 마당이 있는 집에서 자란 우리 한결이는 꽃을 사랑하며, 아직 덜 익은 초록 토마토를 보며 초록색 공쯤으로 생각하며 미소 짓는 아이. 덕분이 잘 익은 토마토는 맛보지 못했지만 자연 속에서 흙을 만지고, 바람을 느끼며 한결이는 마음이 참 예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육아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서운하고, 이유모를 눈물이 흐를 때도 많지요.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은 아이의 성장과 함께 스며들어 제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한결이가 웃을 때마다, 저는 세상이 더 환해지는 걸 느낍니다. 한결이가 제 품에 안겨 잠들 때마다, 인생이 얼마나 따뜻한지 깨닫게 된답니다.
육아는 고난의 연속이지만, 동시에 사랑을 배우는 가장 순수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 덕분에 저는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다시 배우고 있지요.

아이를 너무 완벽하게 키워야 하는 과제처럼 여기지 않으셔도 되요. 아이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부모와 함께 삶을 걸어가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스스로의 속도로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는 존엄한 인격체예요. 아이와 함께하는 매일의 순간 속에서, 성취보다는 관계의 기쁨을, 경쟁보다는 성장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아이와 함께 나누는 작은 행복이 곧 가장 큰 배움이 되고, 그 길이 아이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거예요.

AI 시대,
장난감 블록이
코딩 교육보다 중요한 이유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우리 아이가 겨우 네 살인데, AI 교육을 시작해야 할까요?
다른 아이들은 벌써 태블릿으로 뭔가 배우고 있다던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요?"

남들은 다 시키는데 우리 아이만 안 시키면 뒤처질 것 같은 조바심과,
아직 어린데 기계와 놀게 하는 게 맞나 하는 걱정이 동시에 밀려온다.
부모로서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오늘은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고 싶다.

김상균 | 인지과학자, 경희대 경영대학원 주임교수



인류 문명의 외부 지능 확장

인류 역사는 외부 지능을 확장하는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첫 번째는 문자였다. 기원전 3300년경 수메르인들이 설형문자를 만들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기억을 외부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어졌다. 두 번째는 컴퓨터였다. 1940년대부터 개발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인간은 복잡한 연산에서 해방되었다. 구구단을 외우는 것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지금,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거나 계산하는 것을 넘어 추론하고, 창작하고, 대화한다. 문자가 기억을 대신하고 컴퓨터가 계산을 대신했다면, AI는 사고의 파트너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인간 곁에 두 번째 머리가 생긴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AI 시대의 핵심 역량, 그리고 놀라운 발견

OECD의 교육 2030 프로젝트는 21세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연구해왔다. 이 프로젝트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은 창의성, 비판적 사고, 협력, 그리고 호기심이다. 공감 능력도 태도와 가치 영역에서 포함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역량들은 단순한 기술적 능력보다 인간 고유의 특성에 더 가깝다.
왜일까? 답은 간단하다. AI는 이미 우리보다 빠르게 계산하고, 방대한 정보를 기억하며, 패턴을 분석한다. 하지만 AI에게 여전히 어려운 것들이 있다. 친구가 울고 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하며 다가가는 공감, 빈 상자를 우주선으로 담요를 비밀 기지로 바꾸는 상상력, "왜 하늘은 파랗게 보여요?"라고 끝없이 묻는 호기심, 친구와 놀이터에서 새로운 규칙을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 "이 이야기가 정말 맞는 걸까?" 하고 의문을 품는 비판적 사고가 바로 그것이다.
MIT 미디어랩의 미첼 레스닉 교수는 AI 시대에 창의적 질문과 인간 중심 학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역량인 것이다.

뇌과학이 말하는 영유아기의 비밀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이러한 핵심 역량들이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영유아기다. 하버드 아동발전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생후 첫 몇 년 동안 아이들의 뇌는 초당 1백만 개 이상의 신경 연결을 만들어낸다. 특히 창의성과 문제해결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과 감정과 공감을 담당하는 편도체를 연결하는 신경망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달한다.

이 황금 같은 시기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국내외 발달심리학 연구들은 자유 놀이 시간이 많았던 아이들이 이후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측면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고한다.

놀이는 어떻게 미래 역량을 만드는가?

발달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는, 놀이에서 아이는 항상 자신의 평균 연령을 넘어 행동하며, 일상 행동보다 앞서간다고 했다. 신경과학 연구들은 이를 뒷받침한다.

블록을 쌓는 놀이를 생각해보자. 아이는 블록을 하나씩 쌓으면서 균형을 맞추고, 무너지면 다시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공간 지각력, 계획 능력, 문제해결력이 동시에 발달한다.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 과정에서 실패를 학습하는 회복탄력성도 기른다. 소꿉놀이는 또 어떤가. 아이가 엄마 역할이나 교사 역할을 하며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이것이 공감 능력의 기초다.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할 때, 아이들은 규칙을 지키고, 순서를 기다리고, 역할을 바꾸는 법을 배운다. 협력과 사회성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모래놀이는 또 다르다. 촉각 자극이 감각 통합을 촉진하고, 자유로운 형태 만들기가 창의적 사고를 활성화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놀이가 비구조화된 자유 시간에 일어난다는 점이다. 정해진 답이 없을 때, 아이들의 뇌는 가장 활발하게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

AI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그럼 우리 아이에게 AI를 아예 안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자주 받는다. 아니다. AI를 무조건 멀리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은 결국 AI와 함께 일하고, 협력하고, 살아갈 세대다. 중요한 것은 놀이 중심의 AI 활용이다. AI를 학습의 주체가 아닌, 놀이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먼저 시간의 문제다. 미국소아과학회를 비롯한 전문기관들은 만 18개월 미만 아동의 스크린 타임을 최소화하고, 2~5세는 1시간 이내로 권장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체 활동의 극히 일부여야 한다는 점이다. AI 도구로 15분을 보냈다면, 그날은 실외 놀이 1시간, 책 읽기 30분, 자유 놀이 1시간도 함께 있어야 한다. 균형이 핵심이다.



또한 아이를 AI와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아이가 미디어를 사용할 때 부모가 함께 보고 대화하는 것이 좋다. 아이에게 태블릿을 주고 혼자 교육 앱을 하게 한 후 30분 뒤 "뭐 했어?"라고 묻는 것은 좋지 않다. 대신 함께 앉아서 "이게 뭐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하며 시작하고, 중간중간 "오! 이거 재밌다! 넌 어떻게 생각해?"하고 대화를 나누며, 끝난 후에는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 왜 그랬을까?" 질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다리

디지털 활동이 화면 안에서만 끝나면 그것은 고립된 경험이다. 핵심은 배운 것을 실제 세계로 옮겨오는 것이다.

한 아이가 그림을 그렸다고 해보자. 그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AI에게 보여주며 "이 그림 속 로봇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하고 물을 수 있다. AI가 만든 이야기를 듣고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더 발전시킨 뒤, 그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만들어 놀이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AI는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니라 창의성을 확장하는 파트너가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아이가 AI 앱에서 공룡을 배웠다면, "진짜 공룡 뼈는 어떻게 생겼을까?"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리고 주말에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한다. 집에 와서는 찰흙으로 공룡을 만들어보고, 다시 AI에게 "티라노사우르스는 무엇을 먹었을까?" 질문한 뒤, 그림책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다. 디지털과 현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아이의 탐구는 깊어진다.



질문하는 아이로 키우기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 AI가 제시하는 퀴즈를 수동적으로 푸는 것, 예를 들어 "1+1은? 2+2는?" 같은 식으로 AI가 묻고 아이가 답하는 방식은 좋지 않다. 대신 아이가 AI에게 질문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훨씬 좋다. "AI한테 궁금한 거 물어볼까?", "왜 그럴까? 한번 물어볼까?", "다르게 물어보면 다른 대답을 할까?" 같은 식으로 말이다.

수많은 연구들은 질문 중심의 학습이 아이들의 호기심과 탐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기심이 연쇄적으로 확장되면서 아이들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AI가 두 번째 머리가 되어주는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따뜻한 마음, 더 풍부한 상상력, 더 깊은 호기심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 속에서 가장 잘 자란다.

※ 본 칼럼의 내용은 전문가의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다양한 시각이 공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I 기술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부모가 알아야 할 디지털 안전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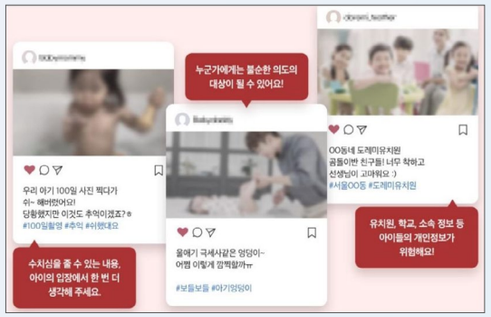
AI 시대, 우리 아이의 정보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제 집 안의 AI 스피커가 아이의 울음소리와 수면 패턴을 감지하는 장면은 낯설지 않다. 수유와 수면 관리 어플, 움직임과 소리를 감지하는 홈카메라, 대화형 스마트 장난감, AI 기반 코딩 장난감 등 발전된 기술은 육아의 편리함을 높이며 아이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집 안의 AI 장치들은 얼굴, 음성, 수면 패턴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며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가 장시간 저장되거나 완전 삭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2017년 아마존 AI 스키퍼 '에코'는 TV 광고의 소리를 명령으로 오인해 장난감을 대량으로 주문했고, 자신의 녹음 데이터를 들려달라는 사용자의 요청에 전혀 다른 사람의 녹음 파일 1,700여건을 제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보호자와 아동이 음성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스마트 테디 베어'는 8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AI와 IoT기기의 보안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위험은 발전된 기술만이 아닙니다. 기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 뿐만 아니라 부모가 직접 올리는 자녀의 개인정보도 영유아에게 장기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최근 이미지 생성 AI가 확산되면서, SNS에 올린 아이 사진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공 및 확산되거나, AI를 통해 학습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합성 피해는 전년 대비 227.2% 증가한 1,384건에 달했습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실사와 구분할 수 없게 된 딥페이크 영상이 가짜뉴스, 성범죄 등에 광범위하게 악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4).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하기도 전에 AI의 자동으로 수집하고, 부모가 공유함으로써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한 개인의 수많은 정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분석되고 활용되어 부모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ccount run by mom '엄마'가 운영하는 '아이' 계정?

인스타그램에서 '#육아' 게시물은 4,849만 건에 이르며 부모가 운영하는 아이 계정은 이제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셰어런팅(Sharenting)은 '공유하다' 라는 뜻의 셰어(Share)와 '육아'를 뜻하는 페어런팅(Parenting)의 합성어로, 자녀의 소식이나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의 학부모·자녀 인터넷 윤리 가이드는 셰어런팅의 장점과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악용 가능성과 이미지 변형 위험을 지적합니다.

나의 셰어런팅, 점검해봐요

아이의 성장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셰어런팅, 부모에게는 공동 육아의 창구이자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즐기는 이 소통이 과연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시 아이를 위험에 노출시키지는 아닐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한국판 셰어런팅 척도(SES-K)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셰어런팅 행동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셰어런팅의 장점

- 육아에 대한 정보 공유
- 아이의 성장 과정과 추억 기록
- 육아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여주는 정서적 지지
-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소통 가능

셰어런팅의 위험성

- 자녀의 개인 정보 유출 위험
- 자녀의 사진이나 정보를 유괴나 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저장할 가능성
-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을 변형하여 악용할 가능성

아이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는 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책임에서 출발합니다. 사진 한 장을 올리기 전의 짧은 고민, 기기 설정 점검 등 일상 속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녀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모여 AI 시대에 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번호	문항	확인
1	SNS 프로필에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얼마나 자주 공유하였나요?(예: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
2	개인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얼마나 자주 보내나요?	☐
3	하루에 한 개 이상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일은 얼마나 자주 있나요?	☐
4	SNS에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은 얼마나 자주 드나요?	☐
5	지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예: 댓글, 좋아요, 하트)을 받기 위해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일은 얼마나 자주 있나요?	☐
6	민감한 상황에서의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일은 얼마나 자주 있나요? (예: 옷을(거의) 입지 않았거나, 수영복을 입었거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
7	자녀가 불쾌해하거나 곤란해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나요?	☐
8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다른 아동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얼마나 자주 공유하였나요? (예: 가족, 친구의 자녀의 사진, 짤/밈/스티커나 음성녹음, 영상 등)	☐
9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주변에서는 얼마나 자주 비난하나요?	☐
10	SNS에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한 후 다른 사람의 피드백으로 인해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나요?	☐
11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자녀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얼마나 자주 느꼈나요?	☐
12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할 때 얼마나 자주 아동복지법을 고려하였나요?	☐
13	소셜 미디어에 공유한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흔적/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자주 고려하나요?	☐
14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얼마나 자주 고려하나요?	☐
15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얼마나 자주 고려하나요?	☐
16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인터넷상에서 신원도용에 사용될 수 있음을 얼마나 자주 고려하나요?	☐
17	공유한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이 소아성애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얼마나 고려하나요?	☐

자신의 정보에 대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어린 영유아의 시기일수록 부모의 판단과 관리가 자녀의 권리를 대신합니다. 결국 보호자의 작은 실천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우리 아이의 디지털 정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래 실천 가이드는 국내외 기관과 연구에서 제시하는 검증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구성한 지침들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며, 자녀의 디지털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안전한 AI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

- 자녀의 디지털 환경의 유해 정도를 평가하여 위험을 최소화해주세요.
  - 예 육아용 AI기기나 앱에서 얼굴 인식, 음성 녹음, 위치 추적 등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 꺼두거나 최소화하기
- 자녀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 및 처리되고 공유되는지 이해해주세요.
  - 예 사용 중인 스마트 홈 기기, AI 스피커, 모니터링 앱 등이 저장하는 데이터의 주기나 삭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일정 주기마다 기록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종료 시 데이터를 완전히 제거하기
  - 예 가정 내 디지털 기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 하기

출처 OECD(2021). Companion Document to the OECD recommendation on Children in the Digital Environment. 중 일부 발췌

셰어런팅에서의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부모는 아동의 사생활과 존엄(dignity)을 존중하고, 게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주세요.
- 게시물 공유 범위는 기본적으로 제한적 공개(default high privacy)로 설정해주세요.
- 아동 사진·영상 반복 노출이 신원 도용· 불법 활용· 사이버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 주세요.

출처 ITU(2020). Guidelines for Industry on Child Online Protiction

- 아이의 미래에 대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 아이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 아이가 자주 가는 곳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 SNS 기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하세요.
- 온라인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 올린 게시물은 주기적으로 삭제하세요.

출처 세이브더칠드런(2021). 아이를 지키는 셰어런팅 가이드라인

- 아이의 현재뿐 아니라 장기적 영향까지 고려해주세요.
- 다른 아동이 포함된 경우 해당 아동 부모의 허락을 받아주세요.
- 언제나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세요.
- 아이를 부끄럽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올리지 말아주세요.
- 아이의 자존감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세요.

출처 UNICEF Norge(2022). 아동 사진 공유에 관한 부모를 위한 6가지 조언

출처
- 강누리(2022).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셰어런팅 경험에 관한 연구: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4).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 박근종(2025. 5. 6.). 아동·청소년 노리는 디지털 성범죄 급증, 발본색원 뿌리 뽑아야. 전국매일신문.
- 박설민(2021. 10. 12.). AI 스피커 급증하는데… 내 개인정보는 괜찮을까. 시사위크.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터넷윤리교육「학부모·자녀 인터넷윤리 가이드」
- 세이브더칠드런(2021). 아이를 지키는 셰어런팅 가이드라인.
- 윤기봉, 김민주, 김햇살, 강하늘(2023). 한국판 셰어런팅 척도(SES-K)의 타당화(SES-K). 아동과 권리(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5).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 한국인터넷진흥원(2025). 2025 개인정보 이슈 심층분석 보고서.
- ITU(2020). Guidelines for Industry on Child Online Protiction.
- OECD(2021). Companion Document to the OECD recommendation on Children in the Digital Environment.
- UNICEF Norge(2022). 아동 사진 공유에 관한 부모를 위한 6가지 조언.



영유아 시기의 미디어 노출과 언어 발달

최은정 과장 | 성남시의료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의 디지털 컨텐츠 첫 노출시기와 적당한 노출 시간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한편 다른 시각으로는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세대인데 영유아 시기부터 빨리 노출시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수 있고, 차라리 빨리 노출시킨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게 낫지 않겠냐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발달지연, 특히 언어 발달 지연 아동들을 많이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의 과도한 미디어 노출의 부정적인 영향중에서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모님들께는 미디어 노출의 첫 시작 시기는 최대한 만 3세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 3세 이전에 미디어를 보는 모든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발달이 취약하게 타고난 아이들에게는 너무 이른 시기에 노출했거나 몰입할 정도로 장시간 노출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 3세 이전의 장시간의 미디어 노출이 특히 언어발달에 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4가지 원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유아 시기에 이용하는 디지털 컨텐츠는 주로 동영상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컨텐츠를 "미디어 노출"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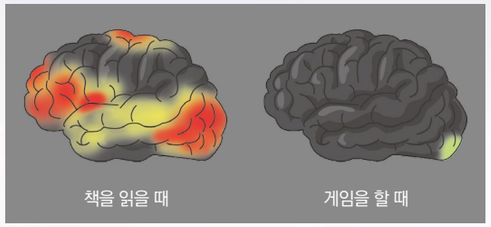
1. 뇌 발달의 문제

첫 번째는 뇌 발달의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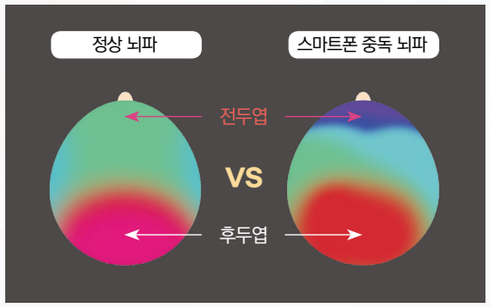
만 3세까지는 뇌 발달의 80%, 언어발달의 80%가 이루어질 정도로 뇌 발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뇌의 한 영역이 아니라 뇌의 전체가 골고루 발달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디어 노출의 경각심을 말할 때 "팝콘 브레인" 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팝콘 브레인은 팝콘이 튀어 오르는 것처럼 즉각적인 것에만 반응을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뇌의 상태를 말합니다.

미디어의 새로운 자극, 강한 자극에 너무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의 흥미를 느끼기 어렵고 또 이런 뇌는 더 강한 자극만을 요구할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뇌는 조절과 균형의 능력을 잃어 가게 됩니다. 책을 읽을 때 전체 뇌가 골고루 반응하는 것에 비해서 게임을 할때는 시각 반응을 관장하는 후두엽만 활성화가 되고 스마트폰을



〈 출처: MBC 공부가 머니? 자료 재구성 〉



〈 출처: tvN 미래수업(뇌를 퇴화시키는 스마트폰의 위험성) 자료 재구성 〉

사용할 때는 전두엽이 활성이 안됩니다.
이 시기에 오감 놀이를 강조하는 이유가 오감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고 터득하면서 뇌의 다양한 부분이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 3세 이전에 장시간 미디어 노출로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거나 뇌의 다양한 부분에 자극을 주지 못한다면 균형있는 뇌발달에 영향을 줄수 있고 이러한 뇌발달이 언어 발달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서 미디어의 시작시기와 노출시간을 결정할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2. 집중력 저하 문제

두 번째는 집중력 저하에 의한 언어 발달 문제입니다.

집중력에는 수동적 집중력과 적극적 집중력 2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잔잔한 영상을 짧게 봐도 만족했던 아이들이 이것을 점점 지루해 한후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을 보여주면 집중을 더 잘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본능적으로 집중력이 발생하는 것을 수동적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적극적 집중력은 스스로 필요해서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이라서 익숙하고 밋밋한 것 뿐 아니라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도 아이들 스스로 의도를 가지고 집중력을 끌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영상을 잘 보는거 보니 집중력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수동적 집중력에만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를수 있고 수동적인 집중력에 길들여지면 뭔가를 꾸준히 참고 조절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예를 들어 발달 점검 차 또는 발달이 느려서 진료를 본 아이들 중에서 진료실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정상 발달로 예상했었는데 막상 1시간 이상 걸리는 발달 정밀 검사에서는 평균 이하에서 경계선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디어 과다 노출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된 아이들은 지시문이 여러개 있는 1시간 동안의 검사에서 검사자가 지시하는 것들을 집중하기 어려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어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타인의 말을 잘들어야 이것을 또 내것으로 표현하는 능력들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저하되면 언어 발달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3. 상호작용 시간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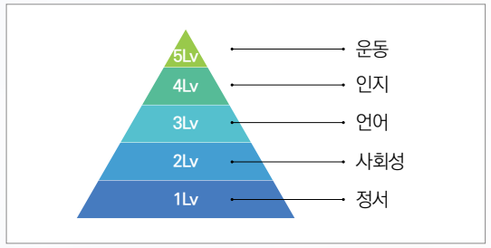
세 번째로는 상호 작용 시간의 감소로 인한 언어 발달 문제입니다.

뇌의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가 반을 하고 하고, 이 반응에 다시 부모가 반응하는 상호 작용이 이루어 질 때입니다.
영상 자체가 아이들의 뇌 발달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영상을 많이 볼수록 아이들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과 놀이 시간이 줄어 들게 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저녁 6시 이후로 아이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시간이 최대 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식사 준비시간에 미디어 보여주고,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서 보여주고 하다보면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 들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더라도 아이들 혼자 보게 두는 것보다 부모님이 영상 속 상황을 말로 설명해주거나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얘기를 나눠 본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이 시기에 육아 도우미로서 영상물을 사용할때가 많기 때문에 같이 시청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 사회성 발달의 문제

네 번째는 사회성 발달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5단계로 보면 가장 먼저 정서 발달이 잘 이루어져야 사회성도 잘 발달하고 그다음 언어, 인지, 운동 발달 순서로 발달이 됩니다.



돌 전부터 가만히 있어도 일방적으로 얘기해주는 미디어에 익숙해진다면 사람과의 상호작용, 즉 사회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왔다 갔다 하는 말과 눈빛, 손짓 등의 제스쳐가 모두 언어 발달의 기초가 되고 이런 것이 약한 아이들은 언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생길수 있습니다.
만 3세 이후 또래와의 사회성이 더욱 발달하려면 본인의 생각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언어발달이 안되면 사회성도 떨어질수 있기 때문에 사회성과 언어발달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4년전 제 진료실을 찾아온 18개월 아이가 불러도 반응이 별로 없고 사회성 발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닌가 걱정이 돼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눈마주침이나 호명반응이 조금 약했고 가장 큰 문제는 언어적인 소통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소통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양육 환경을 조사해보니 어머니께서 독박육아로 인해 생후 6개월부터 하루 종일 TV를 틀어 놓고 지내셨고 아이에게 말조차 걸 수 없는 우울증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TV를 종일 집중 해서 보는게 아니고 TV 보다가 혼자 놀이도 가능했기 때문에 TV 의 영향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료 후에 TV는 거실에서 바로 치우셨고 어머니도 우울증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또래와의 인지, 언어 수준이 6개월 이상 늦다가 2년이 지난후 발달 정밀검사에서 또래와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잡은 케이스입니다. 진료실에 이러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린 시기에는 진단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일단 육아 환경부터 점검하고, 재활 치료를 하면서 추적관찰을 오랫동안 하는 편입니다. 물론 TV를 하루종일 틀어 놓는 엄마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와 둘만 있는 적막함이 싫어서 TV라도 틀어 놓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타고난 언어발달,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취약했던 아이일수 있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느리거나 발달 속도가 느린 아동에게 양육 환경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케이스입니다.
각 가정마다 미디어 노출 시기, 노출 시간에 대한 생각은 다를수 있지만 진료실에서 만나는 부모님들께는 최대한 첫 노출은 만 3세 이후로 미루고 하루 1시간 이상 노출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세대보다 더욱 더 발전하는 디지털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디어 노출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뇌발달이 이루어 지는 영유아 시기는 자기 조절력을 키우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미디어 노출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관심은 취학 후에도, 청소년기에도 반드시 이어져서 건강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 본 칼럼의 내용은 전문가의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다양한 시각이 공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I(인공지능)가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부모의 역할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기술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부모의 고민 또한 복잡해졌습니다.
"AI가 동화도 읽어주고 공부도 시키는데, 앞으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요즘 많은 부모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속 AI 비서가 아이의 질문에 답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AI 로봇이 친구처럼 함께 놉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아이를 따뜻하게 성장시키는 힘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습니다.

AI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사랑·공감·관계의 온도는 부모만이 줄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부모는 기술을 완벽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 속에서도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탐색하고, 감정을 나누며, 스스로 선택해 보는 경험이 바로 그 힘을 길러줍니다.

AI 시대, 부모가 길러야 할 자녀의 세 가지 힘

영유아기는 인생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자라나는 호기심, 감정, 자율성은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핵심역량이지요.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에게 필요한 세 가지 힘을 함께 살펴볼까요?

❶ 호기심을 지켜주는 부모

AI는 주어진 데이터로만 학습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탐색합니다. 아이가 "왜?"라고 물을 때, 곧바로 답을 주는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되묻는 순간, 아이의 사고력과 탐구력은 자라납니다.

TIP '탐색형 대화' 실천하기

- 아이의 질문을 끝까지 듣고, 함께 찾아보세요.
- 정답보다 **생각하는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 "왜 그럴까?" 대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세요.

❷ 감정을 배우게 하는 부모

AI는 감정을 흉내 낼 수는 있어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감정은 부모의 반응을 통해 이름을 얻고, 표현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그럴 수 있지.' 이 짧은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세상을 신뢰하게 만드는 첫 경험이 됩니다.

정서적 교감은 데이터가 아닌 **관계 속에서 배우는 언어**입니다.
감정을 존중받은 아이는 타인의 마음에도 따뜻해질 줄 압니다.

TIP 감정 코칭 대화법

- 아이의 감정을 관찰하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 감정 표현을 인정하고 공감해 주세요.
-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❸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아이로 키우기

AI가 대신 판단해 주는 시대일수록 아이에게는 스스로 결정의 힘입니다. 영유아기는 "내가 해볼래!"의 시기입니다. 옷을 고르고, 장난감을 정리하고, 간식을 선택하는 작은 일상이 곧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TIP 자율성 키우는 부모의 한마디

- "네가 해보는 게 좋겠다."
-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한 번 해볼까?"
- "어떤 걸 고를래?"



부모가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만큼, 아이는 주체적으로 성장합니다.

부모가 먼저 AI를 이해하기

AI 시대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기계를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며 인간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❶ 기술은 '보조자', 부모는 '길잡이'

AI가 동화를 읽어주고 학습을 돕는 것은 분명 편리합니다. 그러나 사용 시간과 방식은 부모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이에게 가장 큰 자극은 부모의 목소리와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TIP AI 활용 균형 잡는 법

- 하루 10~15분 이내,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주세요.
- AI가 '보조자'임을 인식시켜 주세요.
- AI 사용 후, "무슨 내용이었어?", "재미있었어?"처럼 대화를 이어가 주세요.

❷ 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 키우기

AI를 두려워하기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AI는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하는 프로그램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균형 잡힌 디지털 모델이 됩니다. 부모가 기술을 현명하게 대할 때, 아이도 기술을 도구로써 활용할 줄 알게 됩니다.

AI 시대, 우리 집 부모 점검표

"AI가 대신할 수 없는 건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우리 가족의 AI 시대 양육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❶ 우리 집 AI 시대 부모 역할 체크리스트 (☑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한 달 뒤 다시 점검해 보세요.)

영역	점검 질문	체크
기술 사용 인식	• 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기기나 앱의 목적을 알고 있나요? • 기술 사용 시간을 정하고 지키고 있나요? (예: 하루 15~20분) • AI가 아이의 친구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사용하는 도구'임을 인식하고 있나요?	☐ ☐ ☐
부모의 동반자 역할	• 아이가 기기를 사용할 때 옆에서 함께 보고 이야기하나요? • AI가 알려준 정보에 대해 "이건 왜 그럴까?" 질문을 던져보나요? • 기기 사용 후, 아이가 느낀 점이나 인상 깊었던 부분을 물어보나요?	☐ ☐ ☐
감정과 관계 중심의 양육	• 하루 중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는 시간이 있나요? • 아이가 속상하거나 화가 났을 때,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나요? • 아이와 스킨십(안아주기, 손잡기 등)을 자주 하시나요?	☐ ☐ ☐
자기 주도성 지원	•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나요? •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존중하고 기다려주나요? • 실수했을 때, 바로 고치기보다 이유를 물어보고 함께 해결하나요?	☐ ☐ ☐
부모의 학습 태도	• 부모인 나도 AI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조금씩 배우려 하나요? • 아이에게 "엄마(아빠)도 배우고 있어"라고 말해본 적이 있나요? •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에 대해 두려움보다 호기심으로 접근하려 하나요?	☐ ☐ ☐

☑체크가 많이 된 영역은 '잘하고 있는 부분', 체크가 적은 부분은 '이번 달 실천 과제'로 정해보세요. 매달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❷ 가정에서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한 달 뒤 다시 점검해 보세요.)

오늘의 미션	실천 여부
기기 사용 시간 정하고 타이머로 지켜보기	☐
AI 앱 사용 후 느낀 점 이야기 나누기	☐
감정 카드로 '오늘 기분' 나누기	☐
아이가 선택한 놀이로 20분 놀아주기	☐
AI가 해줄 수 없는 일 찾아보기(예: 안아주기, 웃기기 등)	☐
가족이 함께 AI 없는 시간 30분 보내기	☐
일주일 돌아보기(이번 주 제일 좋았던 시간은?)	☐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고, 아이와 함께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AI 시대의 부모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키워드

함께 배우기 → "엄마(아빠)도 처음 알았네, 같이 찾아보자."
따뜻한 대화 → 하루 10분이라도 아이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어주세요.
사람다움 지키기 → 감정 표현과 상호작용 중심의 하루를 만들어 주세요.

기술 속에서도 '마음의 언어'를 잃지 않기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아이를 더 잘 가르칠지도 몰라요."
하지만 AI는 아이의 눈빛을 읽지 못하고, 오늘의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주는 사람은 언제나 부모입니다.

AI가 아이의 세상을 넓혀주는 '지도 앱'이라면, 부모는 그 길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AI 시대의 부모 역할은 기술보다 **관계의 온도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부모의 눈빛, 목소리, 손길이야말로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진짜 언어입니다.

AI 시대의 양육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기술을 거부할 필요도,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그 중심에 '사람의 마음과 관계'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기보다, 아이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감하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그때 아이는 기술보다 더 크고 따뜻한 세상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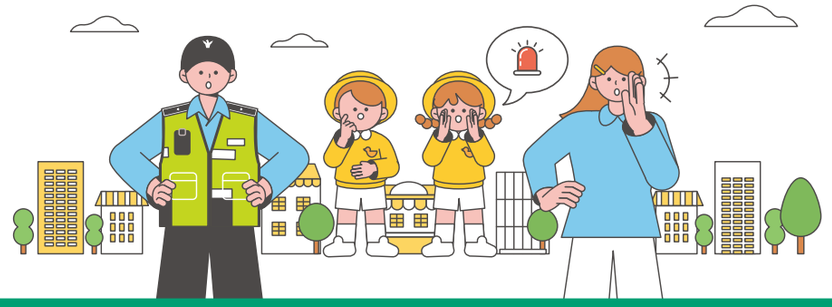


[참고문헌] UNESCO (2023). Guidance for generative AI in education and research.
OECD (2021). 21st-Century Children: Promoting Social-Emotional Well-being through Digital Learning.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2023). AI 시대의 부모교육 방향 연구.

부모자 안전수칙 | 아이에게 교육하기 | 아이와 연습하기 | 관심과 적극성

실종유괴예방에 대해 생각해보기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 실종 및 유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이들이 위험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해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정에서도 아이와 함께 안전습관을 익혀주세요.



부모자 안전수칙

1 사전등록을 신청해 두세요.
- 사전등록은 안전Drean, 홈페이지 또는 앱,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등록이 가능해요.
- 정기적으로 사진 등의 정보를 변경해 주세요.

2 자녀를 혼자 두지 마세요.
- 자녀와 있을 때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해요.
- 인파가 많은 곳에서는 자녀 곁에 더 가까이 있어요.
- 잠시 외출한다고 자녀를 혼자 두고 나가지 않으며, 아동이 잠든 틈, 자동차 등에 혼자 두지 않아요.

3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
- 아동이 어리거나 장애로 말을 못하는 경우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착용해요.
-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은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 등에 새겨놓아요.

4 자녀에 관한 정보들을 기억해 주세요.
- 자녀의 키,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특성, 버릇 등 아동의 인적사항을 적고, 정기적으로 아동의 사진을 찍어 보관해요.
- 아동의 하루 일과와 아동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구와 있는지 알고 있어요.

5 보호자와 함께 정한 안전한길, 사람이 많은 큰길로 다녀요.

6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연습시켜 주세요.
- 위급상황시 112신고 요령을 알려주세요.
-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요.
-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세요. (*안전Dream 앱 '생활안전지도' 메뉴에서 '아동안전지킴이집' 확인 가능)

아이에게 이렇게 교육 해 주세요

1. 멈추기
자리에 멈추고 기다려요.
그리고 당황한 마음을
가라 앉혀요.

2. 생각하기
침착하게 나의 이름, 부모님(보호자)의
이름, 연락처를 생각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길을 잃은 것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아요.

3. 도움 요청하기
경찰관이나 소방관, 다른 아동과 함께
있는 어른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만약 부녕에 사람이 없다면
아동안전지킴이 집에 도움을 요청해요.

아이와 함께 연습해 보세요

1. 안돼요!
낯선 사람이 데려가려 하면
큰소리로 "안돼요"하고 외쳐요.
아는 사람이어도
꼭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요.

2. 싫어요!
누군가 강제로 데려가려 할 때는
"싫어요"라고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야해요.

3. 도와주세요
주변에 보이는 사람을 정확하게 짚어
나의 상황을 "도와주세요"라고
크게 외쳐요.

조그만 관심과 적극성이 큰 도움이 됩니다

미아를 발견했을 경우
- 신고하기 : 112(경찰서), 182.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 없이 182)
- 아이가 있는 장소에서 아이의 부모를 기다려주기
- 아이를 달래며 정보를 묻기.(아이가 집에 간다고 혼자서 가버리게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 아동을 경찰서 등에 인계시 발견하신 분의 이름, 연락처 등을 남겨두세요.



국가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아동안전지킴이집	위험에 처한 아동을 안전하게 임시보호 학교 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약구 등
아동안전수호천사	신뢰성 있는 업체의 외근사원을 위촉하여 아동보호활동 야쿠르트아줌마, 집배원, 태권도 사범, 모범택시운전자회 등
코드아담 (Code Adem)	다중이용시설(백화점, 지하철 등)에서 실종시 시설 출입문을 즉시 봉쇄하고 내부수색 신고(안내데스크) → 경보발령 → 출입구통제 등 → 수색 → 미발견시 경찰신고 / 발견시 경보해제
엠버경보	고속도로, 지하철 등의 전광판, 방송,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신고와 제보 독려로 조기 발견 유도
실종경보문자	실종아동 발생시 신속한 제보를 위 발견가능성이 높은 중심으로 지역 주민에게 실종아동의 정보를 문제메세지로 전송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종상황을대비하여 아동 및 보호자의 정보를 경찰시스템에 등록

표준보육과정의 필요성

0~2세에게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다고요?

"모든 영아는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유능한 존재로 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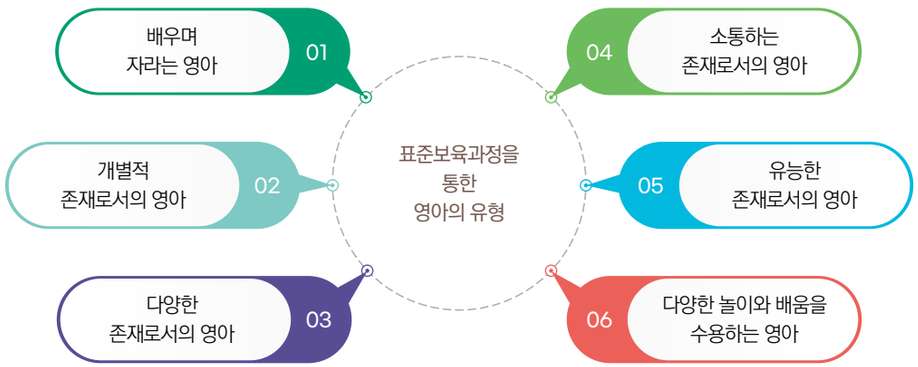


국가 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이 필요한 이유

표준보육과정이란, 국가가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보육과 교육의 목표, 내용, 운영 방법을 표준화하여 제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고, 어떤 경험을 해야하는 지를 정해 놓은 국가기준에 따라 보육을 해요.

교육부 '세계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따라 0~2세 표준보육과정이 2024.12.9.에 일부 개정·고시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배경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영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은 모든 영아가 개별적이며 유능한 존재라는 관점을 갖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표준보육과정을 알아야 하는 이유



부모가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

1 우리 아이의 하루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놀이, 식사, 낮잠, 교육 등)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과정이 개정되면 놀이의 방향, 교사의 상호작용, 교육내용 등이 달라져요.

➡ 즉, 아이가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모도 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2 가정과 어린이집이 같은 방향으로 아이를 지원하기 위해서예요.

아이의 성장과 발달은 가정과 기관의 연속성이 중요해요.
부모가 표준보육과정의 취지와 목표를 알고 있으면, 어린이집에서 배운 경험을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놀이 중심 교육'이 강조된다면 가정에서도 아이가 스스로 탐색하고 선택하는 놀이를 존중해주는 게 좋아요.

3 부모가 교육의 '파트너'이기 때문이에요.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은 교사뿐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중요하게 봐요.
부모는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의 배움과 성장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 양육자로 자라요.

➡ 부모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린이집과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아이의 발달을 함께 점검할 수 있어요.

4 아이의 권리와 발달을 더 잘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개정 과정에는 "모든 영유아는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아이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놀이와 쉼의 균형, 존중받는 관계 등이 강조되요.

➡ 부모가 이를 알고 있으면 **"지식보다 아이의 행복과 경험이 우선"**이라는 보육 방향을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어요.

5 변화된 교육 흐름을 이해하면 불안이 줄어들어요.

"요즘은 공부를 안 가르친다는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은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의 취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해소되요.

➡ 교사가 하는 활동의 이유를 이해하면, 아이의 발달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요.



표준보육과정 개정은 단순한 '교육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부모가 내용을 알고 함께 실천할 때, 아이의 성장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키는 응급처치



상처의 종류별 응급처치, 이렇게 하면 안전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다치지 않고 하루를 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넘어지거나 긁히고, 장난감이나 생활용품에 베이는 일은 흔하지요. 올바른 대처는 아이의 통증을 줄이고, 2차 감염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세요

- 강한 화학물질이나 소독제는 금물!! 상처에 함부로 바르면 피부 조직을 더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상처 부위를 많이 움직이면 출혈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아이가 안정된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면 출혈과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처 종류별 응급처치

타박상 (멍, 부어오름)

둔한 물체에 부딪혀 멍이 생긴 경우입니다.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한 후, 얼음팩을 수건에 싸서 10분가량 냉찜질해 주세요.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면 동상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천을 사이에 두세요.

찰과상 (피부가 벗겨진 상처)

넘어지거나 마찰로 인해 피부가 긁히는 경우입니다.
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은 뒤, 항생제 연고를 얇게 발라주세요.
상처 부위가 좁으면 노출시켜 두어도 괜찮지만, 넓거나 깊으면 멸균 거즈로 덮어 보호합니다.

자상 (찔린 상처)

못, 유리 조각, 송곳 등 예리한 물체에 찔린 경우입니다.
상처를 씻은 뒤, 이물질이 깊게 박혀 있다면 절대 억지로 빼내지 마세요.
즉시 응급실로 이동하고, 필요 시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열상 (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칼, 깨진 유리 등으로 인해 피부가 절개된 경우입니다.
출혈이 심하면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눌러 압박 지혈을 합니다.
상처의 깊이가 깊거나 벌어진 경우, 봉합을 위해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

- 출혈이나 부종이 심한 경우
- 이물질이 박혀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 상처가 깊거나 넓어 봉합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 상처 부위가 오염되어 염증이 생긴 경우

"소중한 우리 아이 안전은 우리가족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골절이나 탈구가 되었을 때, 침착한 대처가 중요해요

놀이터에서 뛰다가 넘어지거나, 자전거를 타다 부딪히는 일은 아이들에게 흔한 일입니다.
대부분은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나지만, 간혹 골절(뼈가 부러짐)이나 탈구(관절이 어긋남)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침착한 응급처치가 중요합니다.

알아두세요

- 척추·골반·허벅지 손상이 의심된다면, 아이를 움직이지 마세요. 작은 움직임도 뼈 조각이나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골절이나 탈구 부위를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세요. 통증과 출혈이 심해지고,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골절· 탈구, 대처방법

움직이지 않게 부동시키기

아이를 안정된 자세로 눕히고, 손상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골반이나 다리 부위 손상 시에는 수건, 담요, 옷 등을 말아 다리 사이에 끼워 즉석 부목처럼 고정합니다.

통증 완화하기

부종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 얼음팩을 수건에 싸서 10~15분간 냉찜질합니다.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면 동상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응급 구조 요청하기

119에 연락해 아이의 상태(통증 부위, 의식 여부, 호흡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세요.
가능하다면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의료진에게 보여주면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

- 척추 손상이 의심될 때
- 머리 손상이 심하거나 골절 부위가 넓을 때
- 호흡이 어렵거나 의식이 떨어질 때



영유아가 화상을 입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 주방이나 거실 곳곳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뜨거운 물, 라디에이터, 전기포트, 심지어 헤어드라이어도 작은 손에는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영유아의 피부는 성인보다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라도 빠르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중요합니다.

화상의 종류 알아두기

2도 이상 화상은 반드시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구분	증상	특징
1도 화상	피부가 붉어지고 따끔거림	햇볕에 그을린 듯한 상태
2도 화상	물집이 생기고 통증이 심함	표피와 진피 일부 손상
3도 화상	피부가 하얗거나 갈색으로 변함	신경 손상으로 통증이 약함

화상을 입었을 때, 대처 방법

즉시 식히기 (20분의 법칙)
화상을 입었다면 즉시 미지근한 흐르는 물에 20분간 화상 부위를 식혀 주세요.
얼음이나 너무 찬물은 오히려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옷 위로 화상이 생겼다면 억지로 벗기지 말고, 옷 위에서 그대로 물을 흘려보내며 식히세요.

이물질은 제거하지 않기
피부에 옷감이 붙었거나, 물집이 생겼다면 절대 손대거나 터뜨리지 마세요.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상처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보호하기
화상 부위를 식힌 뒤에는 멸균 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살짝 덮어 보호합니다.
이때 치약, 된장, 알로에 젤 등은 절대 바르지 마세요. 피부에 자극을 주고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증 완화 및 안정시키기
아이가 아파서 울거나 보채면 소아용 해열·진통제를 의사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안정시키고 안심 시켜주는 부모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

- 화상 부위가 넓거나 깊을 때
- 얼굴, 손, 발, 생식기, 관절 부위에 화상이 있을 때
- 물집이 여러 개 생기거나 터졌을 때
- 피부가 하얗게 변했거나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깊은 화상)
- 뜨거운 김, 불길을 흡입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호흡기)



우리 아이 열이 날 때 이렇게 하세요

아이가 갑자기 뜨거워지고 얼굴이 붉어질 때, 부모의 마음은 금세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열은 몸이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고 있다는 신호예요.
열 자체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아이가 힘들어하는지와 부모의 침착한 대처입니다.

알아두세요

- 체온의 기준은 측정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겨드랑이 37.4℃ 이상, 구강·고막 37.6℃ 이상, 항문 38.0℃ 이상일 때, 열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이 날 때, 대처방법

옷을 얇게 입히거나 벗겨주세요.
두껍게 감싸면 체온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주면 도움이 됩니다.
단, 찬물이나 알코올로 닦는 것은 금물! 피부 자극이나 혈관 수축을 일으켜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해열제는 신중히 사용하세요.
열이 있다고 바로 해열제를 주기보다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식사나 수면이 어렵고 보채는 경우, 체온이 38.5℃ 이상일 때 해열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탈수를 예방하세요.
열이 나면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쉽게 빠집니다.
미지근한 물, 보리차, 수분 보충 음료 등을 자주, 조금씩 마시게 해 주세요.
특히 아기들은 젖이나 분유 섭취량이 줄 수 있으니 탈수 증상을 꼭 관찰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

- 평소 경련성 질환이 있거나 열성 경련을 한 적이 있는 경우
- 의식이 떨어지거나 몸이 축 늘어지는 경우
- 심하게 보채거나, 호흡이 가빠지고 아파 보이는 경우
- 소변량이 줄고, 입술이나 혀가 마르며 탈수 증상이 보이는 경우

출처 : 세브란스 건강정보(https://health.severance.healthcare)



그때가 좋을 때다

굿대디툰

아이들을 등원시킨 평일 건아와 함께 식당에 갔다.
테이블이 많지 않은 상가 1층의 작은 식당이었다.



김치찌개와 매운 돼지볶음을 파는 식당이라 아기들을 보기가 어려워서 였을까.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께서 건아를 유독 예뻐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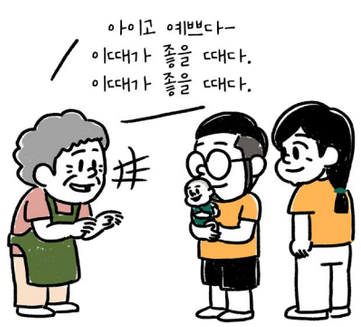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아주머니들께서는
건아를 보러 오셨다.



밥을 다먹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던 가장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 할머니가
건아를 보러 나오셨다.



바쁜 점심시간을 보내고, 뒤늦게 주방에서
나오신 인상 좋은 할머니셨다.



1분도 안되는 그 짧은 시간, 몇 마디도 안 되는
말이었는데, 주름진 할머니의 미소와 '이때가 좋을
때다'라는 말이 진하게 맴돌았다.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길래 그런 표정이셨을까.



우리를 보면서 그 옛날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아기의 재롱에 남편과 함께 웃으며 고된 하루를
이겨냈던, 그 언젠가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셨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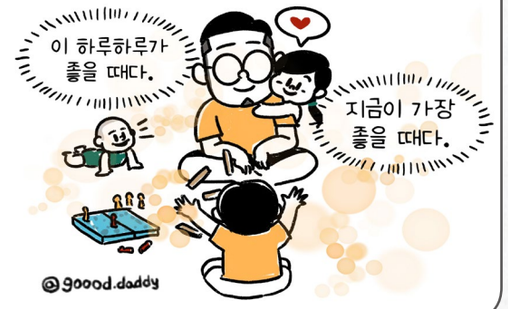
할머니에겐 그때가 가장 좋은 때셨을까.
내 멋대로 할머니의 인생을 그려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도 같은 말이 맴돌았다.



매일 윷놀이하자고 먼저 나에게 찾아오는 수아.
윷놀이하는 동안 내 등을 안으며 귓속말로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은아.
이름만 불러도 황금미소를 지어주는 건아까지...



먼저 와서 놀자 하고, 먼저 안아주고 사랑한다
하는 이런 순간이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을까.
5년? 막내 건아까지 10년? 확실한 건...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충북도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인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과 관련한 정보와 상담, 시간제보육 서비스, 장난감 및 도서대여, 보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상담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 터 사 업 -

어린이집지원	가정양육지원	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시군구센터 지원
• 표준보육과정 • 보육교직원 교육 • 보육컨설팅 • 취약보육지원 •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 • 충북보육인풀 (직접채용대체교사) • 충북형 가치봄 사업	• 시군분소운영 (옥천, 음성, 증평, 괴산) • 공통부모교육 •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 자체부모교육 • 영유아 놀이공간 제공 • 도서·장난감 대여 서비스 • 시간제 보육 관리	• (T.e.e 움) 보육교직원 상담 • 영유아 긍정정서행동 양육상담 • 찾아가는 발달지원 서비스 • 사회 정서 놀이 치료 및 언어치료 • 발달 지연 영유아 특수교사 지원	• 홈페이지 및 SNS 운영 •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 보육 및 양육 정보지 발간 • 지역사회 유관 기관 연계사업 지원 • 시군구센터 총괄·관리 • 시군구센터 미설치 사각지대 지원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두 가지의 메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 관련 정보, 유보통합, 어린이집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와 부모 교육,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양육 및 발달 상담, 놀이체험실, 놀꽃마루를 예약하고 신청하는 「충청북도육아자람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충청북도육아자람포털에 가입하셔서 다양한 정보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가장 먼저 알아보시고 유익한 우리 지역 소식도 챙겨가세요!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충청북도육아자람포털」홈페이지



놀꽃마루

놀꽃마루는 영유아와 부모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놀이하고, 부모는 따뜻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영유아 부모를 위한 통합돌봄공간입니다. 이곳은 문화공간을 넘어 함께 자라고, 함께 웃고 성장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 대상: 충북도 내 영유아 (만0~만5세)
- 운영일: 화요일~토요일(10:00~17:00), 일요일(10:00~16:00)
- 이용료: 무료
- 이용방법: 충청북도육아자람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
- 문의전화: 043-221-6061



놀꽃마루



꽃마루



쉼마루



풀마루

2025년 놀꽃마루 사진 공모전

놀꽃마루에서의 특별한 하루 | 놀꽃마루에서 놀이하는 모습 | 놀꽃마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

'놀꽃마루'에서 사진 공모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쁘고 소중한 사진들은 가족들의 즐거운 순간과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보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선물합니다. 놀이와 보육의 가치, 그리고 가족 간의 소중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놀꽃마루는 오늘도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2025년 함께 양육 토크콘서트



Q '함께 양육 토크콘서트'는 어떤 취지로 진행되었나요?

A 양육자분들이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양육 지식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정보를 전하는 것에서 나아가, 부모님들께서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를 얻으며 양육의 자신감을 키워가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Q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나요?

A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겪는 양육 고민을 중심으로, 실제 육아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된 주제를 다뤘습니다. 전문 강사의 깊이 있는 강의와 공감 어린 사례 공유를 통해 '아이를 이해하는 방법', '마음이 통하는 대화', '부모로서의 회복'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Q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A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공감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A 부모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지역마다 맞춤형 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함께 웃고, 함께 배우는' 토크콘서트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김붕년 양육 토크 콘서트




서천석 양육 토크 콘서트






2025년 충북형 찾아가는 발달지원 사업

- 언어, 사회성, 정서·행동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유아, 담임교사, 양육자를 대상으로 진행
- 선정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
- 발달 심리검사와 부모 양육태도 검사를 통해 유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양육 상담 및 치료 연계를 지원
- 모든 과정은 개인 자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
- 부모, 교사 상담 및 특수교육 지원을 통해 발달 이해도와 대응 능력을 높이고, 가정과 기관의 발달지원 역량 강화
-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 조기 발견 및 개입이 가능한 보육 환경 조성

신청	상담사 파견	치료사 파견
모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발달·심리검사 및 상담 (유아, 교사, 양육자)	(발달지연 유아) 언어 및 놀이치료



「따숨맘」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다시 돌보는 시간.

'따숨맘' 은 따뜻한 숨, 그리고 따뜻한 쉼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1. 프로그램 핵심 주제

- 역할 정체성과 내면 감정 탐색
- 억눌린 감정 표현과 수용 연습
- '엄마인 나'의 기능과 감정 점검
- 자기 돌봄과 회복력 키우기

2. 프로그램 소개

-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수용하는 연습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좋은 엄마'가 되기 전에, '건강한 나'를 회복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 정서 회복과 자기 돌봄을 통해 아이와 가족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3.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 육아로 인해 감정적으로 지치신 분
- "아이 먼저"라는 생각에 늘 자신을 뒤로 미루는 분
-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감정 표현이 어려운 분
- 나 자신을 위한 시간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엄마

4. 프로그램 효과

- 감정 인식과 표현 능력 향상
- 자기 이해와 회복력 강화
- 긍정적인 가족 관계 형성
- 양육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안정

시군 분소안내

[놀이체험실] 옥천 분소 동동 놀이터 / 괴산 분소 아이숲 놀이터

	옥천 분소	괴산 분소
이용시간	화요일~ 토요일 (1회) 10:00-11:30 (2회) 13:30-15:00 (3회) 15:30-17:00 / 일요일 13:30-17:00	화요일~ 토요일 (1회) 10:00-11:30 (2회) 13:30-15:00 (3회) 15:30-17:00
이용대상	옥천군 내 일반회원, 기관회원 / 0세~만5세 영유아	괴산군내 일반회원, 기관회원 / 0세~만5세 영유아
이용료	개인회원 회차 당 2,000원 기관회원 회차 당 1,500원	개인회원 회차 당 2,000원 기관회원 회차 당 1,500원
휴 관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전 화	043)731-2286	043)833-6602
주 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 4길6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6길 30

[장난감도서관] 옥천 맘쓰허그 장난감도서관 / 음성 노리마을 장난감도서관
괴산 맘쓰허그 장난감도서관 / 증평 노리마을 장난감도서관

	옥천 분소	음성 분소	증평 분소	괴산 분소
이용시간	화~토요일 09:00-17:00	화~토요일 09:00-17:00 (수요일 19:30까지 운영)	화~토요일 09:00-17:00 (수요일 19:30까지 운영)	화~토요일 09:00-17:00 (수요일 19:30까지 운영)
이용대상	일반회원, 기관회원	일반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
휴 관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전 화	043)731-2280	043)881-2282	043)838-9041	043)833-6601
주 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 4길6	충북 음성군 맹동면 사예 2길 37	충북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56-2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6길 30
홈페이지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소식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충청북도 육아자람포털 / 인스타그램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채널 / 페이스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7, 센트럴칸타빌 2층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Tel. 043-239-8777 http://chungbuk.childcare.go.kr/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22번길 67(수동 36-3) 놀꽃마루

Tel. 043-221-6061 https://cbportal.cbeducare.or.kr/

좋은 **보육**, 신나는 **육아**, 행복한 아이를 위한 **건강한 육아 실현**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